

삼양사, 헝가리에 EP 플랜트 건설

1000만유로 투입 TV패널 소재 공급 ... 2013년 2만2000톤으로 확대

삼양사가 헝가리에 EP(Engineering Plastic) 플랜트를 건설했다.

삼양사는 1000만유로를 투입해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패널용 소재 원재료를 1만1000톤 생산하는 EP 플랜트를 건설에 3월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2011년에는 우선적으로 7000톤을 생산하고 2012년까지 1만1000톤으로 늘려 3개 라인을 풀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2013년까지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2만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급업체도 삼양사의 헝가리 EP 플랜트는 제일모직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플랜트를 세워 헝가리에 진출한 때와 일치한다.

삼양사와 제일모직 모두 그동안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헝가리법인(SEH)과 슬로바키아법인(SESKE)에 수출하다 현지생산 및 공급 체계로 바꾼 것이다.

삼성전자 헝가리법인은 삼양사와 제일모직으로부터 레진을 7대3 비율로 분할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사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삼성전자 공장 공급물량을 바탕으로 현지생산을 시작한 후 LG전자, 필립스, 그리고 일본계 전자기업 등을 추가 구매처로 확보해 3개 라인을 증설하고, 현대자동차그룹도 고객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기업들 뿐만 아니라 Bayer, Sabic 등 현지 유럽계 경쟁기업과도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헝가리 EP 플랜트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8>